

1. 「무역부국」 건설을 통한 선진국가 실현

정 책 방 향

- ◇ 단기적으로는 원유가 상승에 의한 불가피한 수입확대에 대응하여
 - 수출마케팅 강화, 수출애로타개 등 수출 노력 전개
 - 환율, 금리 등 거시변수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
- ◇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
 - 물류, 인력 등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
 - DDA 협상, FTA 체결, 수입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도 적절히 대응

가. 최근 수출입동향 및 전망

- 3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.5% 증가한 433.2억불, 수입은 30.7% 증가한 441.6억불, 무역수지는 8.4억불 적자를 기록

< 수출입실적 추이 >

구 분	'02년				'03년			
	1월	2월	3월	계	1월	2월	3월	계
수 출(억불)	113.8	110.2	132.5	336.5	143.2	134.3	155.7	433.2
(증감율,%)	△10.0	△17.5	△6.2	△11.1	25.8	21.9	17.5	21.5
수 입(억불)	113.3	104.7	120.0	337.9	144.2	138.1	159.3	441.6
(증감율,%)	△8.9	△17.8	△7.4	△11.4	27.3	31.9	32.9	30.7
무역수지(억불)	0.6	5.5	12.6	18.7	△1.0	△3.8	△3.6	△8.4

- 수출은 품목별로 무선통신기기(51.9%), 자동차(22.6%) 등의 호조와 지역별로 중국(64.1%), 동구(40.8%), EU(29.1%)의 호조
-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20%대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, 원유 등 에너지수입 급증으로 소폭의 무역적자 시현
- * '03.1~3월중 무역적자 8.4억불, 전년동기 대비 에너지수입 증가액 : 32.3억불

□ 당초 계획으로는 연간 8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전망하였으나, 국제유가 전망, 세계경제의 회복 등이 불투명하여, 무역흑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

나. 주요 추진시책

(1) 거시변수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

- 이라크전쟁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사스(급성호흡기중후군)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
 - 수출보험 담보비율 확대(90~95% → 100%), 무역금융 총액 대출한도의 상향 배정 등 수출기업애로 해소
 - 사이버 수출마케팅(KOTRA 사이버상담실 등)을 강화하고 사스 확산지역에 대한 해외마케팅계획을 타지역으로 전환
- 「환율모니터링체제」 구축과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('02:4.6조원→'03:4.86조원) 등을 통한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 강화

(2) 수출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로 수출역량 제고

□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

- 세계일류상품의 지속적 발굴 및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등 사후관리의 내실화로 주력수출품목으로 육성

* 발굴계획 : ('03) 326개(既선정) → ('05) 500개 → ('10) 1천개

- 부품·소재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

- 부품·소재 신뢰성 보험 실시('03: 100억원) 및 차세대 수출유망 원천기술개발을 계속 지원('10년까지 2조원)

- 서비스와 엔지니어링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를 확대

- 플랜트 업계간 공동 입찰참여를 활성화하고 중동지역 특수를 겨냥하여 『대중동 수주단』 파견(4월말)

□ 해외마케팅 활동 및 통상 협력 강화

- 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여 틈새시장 개척

* 선진국 유명전문전시회 단체별 참가 : ('02) 145회 → ('03) 158회

*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: ('02) 210개사, 8억원 → ('03) 315개사, 16억원

- 중국, 동남아 및 남미 시장에 일류상품 및 한국상품전을 개최하고, 개도국에 전문화된 시장개척단 파견('02 : 125회 → '03 : 141회)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 마케팅 활동 전개

○ 주요 교역국의 특성에 맞는 통상산업협력 강화

미국	- 대규모 사절단 파견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-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, 민간차원의 각종 산업협력채널 활성화
중국	- 협력적 산업구조를 활용한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 발전 - 광둥성, 요녕성 등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 구축
일본	- 핵심 부품·소재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대일 역조 개선 - 한·일 FTA 체결을 위한 대응방안 수립
EU	- EU 집행위와 공동으로 민간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통상·산업협력 활동 전개

□ 무역인프라의 확충과 효율성 극대화

- 무역인큐베이터사업 확대('02:10개 대학, 350명 → '03:20개 대학, 700명), 남미, 러시아, 동유럽의 특수언어권 마케팅 요원 양성('03년 40명, '10년까지 2,000명) 등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
- 「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」 수립, 통합무역관리솔루션의 보급 및 「e-무역상사」 사업('03.3월 3개사 선정) 등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
- 무역전시장, 무역센타 건립 및 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·추진을 통해 전시산업 선진화
 - 품목별 유망전시회 및 지방전시회 예산지원 확대
 - * '02 : 45억원, 20개 → '03 : 55억원, 35개
 - 국제수준의 전시장(고양, 광주 등)을 건립하고, 전시장 건립 등에 대한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
 - * 고양전시장 : 총사업비 627억원('03: 157억원), '05.3월 완공예정
 - * 광주전시장 : 총사업비 771억원('03: 85억원), '05.7월 완공예정

□ 무역규모에 상응한 수입확대 및 질서 확립

- 중국, 미국 등 무역흑자 확대 국가에 대한 무역불균형 해소 노력 및 한국 수입시장의 개방성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
 - * 중국 구매사절단 파견계획 : 대련·북경(5월), 상해(6월), 산둥(4/4), 화둥(4/4)
 - * 수입상품전시회(5월), 주한 외국상무관 수입정책 설명회 개최(10월)
-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홈쇼핑,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
 - * 신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(예시) : 체인부품, 터빈, 엔진, 모터, 인조 조화

□ 수입규제와 품목별 통상마찰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FTA, DDA 협상에 능동적 대처

- 민관 합동의 『수입규제대책회의』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활동 강화
- 수출주력산업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, 보조금 논란 등 다양한 통상압력에 대하여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대응방안 강구
- 수출시장 확보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, DDA 협상시 협상동조국가(Friends Group)와 긴밀한 협조로 통상환경 개선

(3) 산업수요에 부응한 무역구제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

- 반덤핑, 상계관세,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등 다양한 무역구제수단의 활용을 강화
- 무역 및 산업에 관한 연구·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무역위원회를 상임위원회체로 전환하여 전문성 제고

